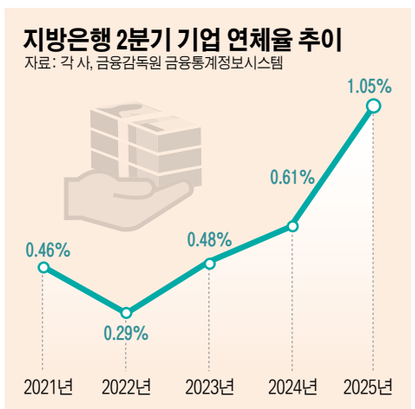
"비상!"… 지붕 뚫은 지방은행 연체율

6월말 '심리적 마지노선' 1% 돌파

지역경기 침체·기업대출 연체 증가 기인
중기 대출 연체율은 1.16%까지 치솟아
부실채권 매각 등 건전성 강화 안간힘
"지역 기업 규제 완화·저리 대출 등 필요"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로 지방은행의 연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역 기업들과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과 가계 신용대출까지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 은행의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방은행들은 수도권에 몰린 인프라에 뒤처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리 대출 프로그램 강화 등 정부 차원의 금융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방은행(부산, 경남, 전북, 광주)과 지역 기반이면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 등 5개 은행의 올 6월말 평균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올 2분기 기준 지방은행별 연체율을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1.58%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1.09%)보다도 0.49%포인트(p) 올랐다. 같은 기간 경남은행의 연체율은 1.02%로 지난해 말(0.45%)보다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이어 부산은행(0.94%), iM뱅크(0.93%), 광주은행(0.76%) 순이다.

기업대출 연체율 역시 전북은행이 1.46%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해 말(0.94%)보다도 연체율이 상승했다. iM뱅크가 지난해 12월말(0.71%)보다 두 배 가량 오른 1.05%로 뒤를 이었다. 이어 경남은행이 1.03%, 부산은행 0.98%, 광주은행 0.71% 순이다.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대출 연체율이 오른 탓이다. 올 2분기 기준 5개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1.05%로, 지난해 6월 말(0.61%) 대비 두 배 가량 올랐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1.16%까지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평균 1% 수준을 웃돌았다.

통상 금융권에서 은행 연체율이 1%를 넘으면 '심리적 마지노선'에 다다랐다고 본다. 국내 시중은행들이 평소 연체율을 0.2~0.5%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연체율이 1%가 넘었다는 것은 경기침체의 초기 신호로 해석된다. 단순히 일부 차주(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의 단발성 상환불능 상태가 아닌,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상환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연체율이 악화된 지방은행들은 대손충당금 역시 더 많이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순이익은 급감할 수밖에 없고 부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올 1분기 기준 지방은행 5곳의 대손충당금 적립 잔액은 약 2조2551억원으로, 이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직전인 지난 2020년 1분기(1조1519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다만 올 2분기는 실적 호조 등에 따라 이보다는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 은행들은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상·매각 등 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나섰으나 부실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기엔 역부족이다. 결국 정책적 지원을 통해 부실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충당금 관련 규제 완화 및 지역 기반 기업들의 영업 여건을 개선해주는 등 정책적 지원을 요구한 바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기업 대출 잔액 비율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이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며 "중소기업 대출 보증이나 정책자금 지원, 저리 대출 프로그램 강화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결국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방은행도 운영 정상화에 도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현안에 맞는 금융, 비금융 지원 정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임종룡(가운데)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유니버설뱅킹 신규 가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직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우리금융 유니버설뱅킹, 6개월 만에 100만명 가입

임종룡 "단일 플랫폼으로 고객 금융지원"
내년엔 ABL·동양생명에도 서비스 탑재

우리금융그룹은 지난해 11월에 선보인 그룹 유니버설뱅킹 서비스가 출시 6개월 만에 회원수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설뱅킹은 우리금융의 모바일 앱 '우리WON뱅킹'에 탑재된 서비스로 △은행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우리금융그룹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유니버설뱅킹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우리은행의 알뜰폰 브랜드'우리WON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어 6월에는 우리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인 '우리WON MTS'를 출시해 인공지능(AI) 기반 종목 추천이 가능한 국내주식 거래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해외주식 거래까지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넓힐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리금융그룹에 새로 합류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핵심 서비스까지 탑재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융 계열사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니버설뱅킹 체계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단일 플랫폼을 통해 고객의 금융 생활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과 서비스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버설뱅킹 회원수 증가에 힘입어 '우리WON모바일'은 7월 말 기준 2만4000명에 이르는 가입자들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실적도 6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6배 증가하는 등 단순한 앱 접속이 아닌 상품 판매 실적 증대로 시너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삼성화재 "車 침수사고 수도권·야간 운행 집중"

차량 운행 중 침수 사고는 수도권 지역 야간 시간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운행 중 침수 사고가 총 4232건이었고, 특히 이 중 72.5%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44.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28.4%)△경상권(12.9%) 충청권(7.4%)△전라권(5.5%)△강원·제주(1.6%) 순이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초구(31.2%), 강남구(30.3%) 순으로 침수 사고가 잦았다. 경기도는 성남시(12.2%), 화성시(8.8%)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야간 운행 중에 발생한 침수 사고가 61.2%로 주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전체 침수 사고의 31.6%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

카뱅,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 4조 육박

10명 중 6명은 중·저신용자
소상공인 대상 2조5000억원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 서비스 출시 약 3년 만에 누적 공급액 4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10명 중 6명은 중·저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로 소상공인에게 공급한 금액은 지난 7월 말 누적 기준 각각 1조8500억원, 1조9200억원으로 합계 약 4조원에 달한다.

대출 잔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상공인 대상 대출 잔액 합계는 총 2조5000억원이다. 이중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잔액은 1조원,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 잔액은 1조5000억원이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80% 이상 확대됐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대출은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들다수가 이용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전체 고객 중 64%는 중·저신용자다. 개인사업자 보증서대출의 경우도 중·저신용 고객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서대출 상품 종류도 지속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년여간 전국 대부분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고 다양한 보증서대출 상품을 선보였다.

'소상공인 업종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통해 사업자 신용평가의 변별력도 높였다.

염재인 기자 yji@viva100.com

네이버페이 車보험 비교, 누적 350만건 돌파

비교·추천 2.0 서비스 도입후 크게 늘어

네이버페이(Npay)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누적 이용건수가 350만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서비스가 도입돼 사용자가 보험 만기일이나 차량정보를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비교 과정을 끝까지 진행한 사용자는 기존 대비 220% 급증했다.

또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지면서, 보험료 비교 후 보험사로 이동해 계약을 진행하는 건수는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2.0' 도입 이후 기존 대비 40% 증가했다.

네이버페이에 따르면 사용자들은 자동차보험비교 후 평균 26만원 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다. 기존 가입된 보험을 중소형 보험사로 갈아타기를 한 비중은 36%로, 전체 자동차보험 가운데 중소형 보험사 점유율인 8.3% 대비 4배 이상 높았다.

Npay 자동차보험비교는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청구할인, 주유권 등 보험사별 제공 혜택 비교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운전 성향 분석에 기반한 보험료 추천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왔다.

이 밖에 해외여행보험 비교 서비스의 성장도 가파르다. 지난해 7월 Npay가 업계 최초로 해외여행보험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보험 비교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250% 성장했다.

Npay 해외여행보험 비교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8개 보험사의 보험료 비교가 가능하다. 또 사용자가 휴대품 손해부터 항공기·수하물 지연, 해외의료비와 여행중단 사고 등 총 14가지 주요 담보를 자유롭게 설정해 비교할 수 있다.

도수화 기자 dosh@viva100.com

